

월간 실적보고

2017.04

Summary of 2017 Apr

1. 해외여행상품 (패키지+티켓+단품) **33.2%** 성장
 - 해외 총 송객인원과 단품 (입장권, Pass 등)을 합산한 수치
2. 해외 총 송객인원 (패키지+티켓) **18.9% YoY 증가**
 - 패키지 **3.5%** (ASP YoY **15%** 증가) / 티켓 **44.4% YOY 증가**
(**11.5만명 / 9.7만명**)
3. 유럽 **60%** 동남아 **44%** 미주 **15%** 남태평양 **20%** 일본 **10%**
 - 유럽 5개월 평균 YoY **64.4%** 성장
 - 일본 13개월만에 플러스 성장

4월 Review : 해외여행상품 (패키지+티켓+단품) 성장률 33.2%

해외 총 송객인원 (패키지+티켓) 성장 18.9%, 송객인원 21.2만명. 5개월 연속 월간 20만명 이상 송출
 패키지 인원 성장률 3.5%, 11.5만명. **ASP YoY 15% 상승**. 한중 외교 마찰로 중국 역성장. 그로 인해 볼룸
 성장 둔화. 하지만 중국을 대체한 일본 동남아 비롯하여 유럽 등 전 지역 ASP 상승
 티켓 인원 성장률 44.4%, 9.7만명. 3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속

4월 실적

(단위 : 명, %)

	패키지	티켓	총 송객인원
2017	114,850	97,101	211,951
2016	110,999	67,229	178,228
YOY	3.5%	44.4%	18.9%

패키지 YoY : 1월 3.4% → 2월 22.3% → 3월 32.3% → 4월 3.5%

티켓 YoY : 1월 23% → 2월 33.6% → 3월 36.5% → 4월 44.4%

총송객 YoY : 1월 10.9% → 2월 26.7% → 3월 33.8% → 4월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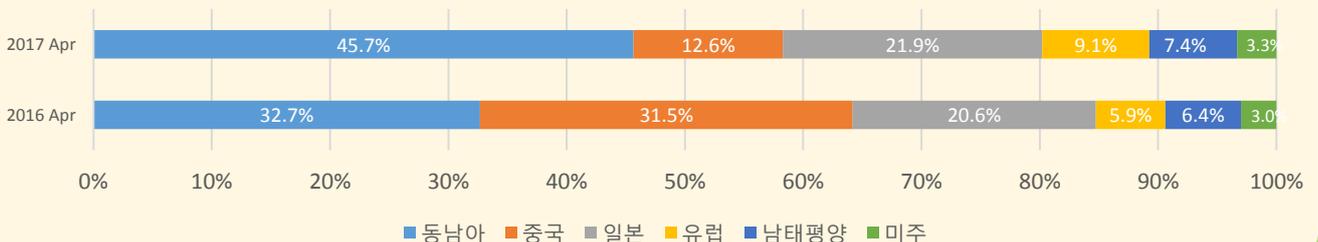
지역별 성장 (YoY)

유럽 59.5% 동남아 44.4% 남태평양 20.1% 미주 14.8% 일본 10.2%

유럽 +59.5%, 5달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 (평균 YoY 64.4% 성장) **매출 비중 전년동기 대비 6.4P% 증가**
 동남아 +44.4%, 일본 +10.2%, 둔화된 중국의 성장성을 동남아와 일본이 대체, 흡수하며 큰 성장. 특히
 일본은 13개월만에 두 자릿수 성장으로 역성장에서 벗어남. ASP도 가장 큰 폭 상승

남태평양 +20.1%, 미주 +14.8%, 1년 이상 두 자릿수 성장. 높은 기저구간 진입 불구, 고성장 지속
 중국 -58.6%, THAAD 관련 한중 외교 마찰로 인해 현지 안전 우려 및 반중 감정으로 인해 역성장. 전체
 볼룸 성장 둔화에 영향. 새로운 정부 출범하면 한중 긴장 완화 기대로 3분기 부터 회복 가능성 고조.

인원 비중



예약률 증감 (PKG)

(단위 : 명, %)

	17년 5월	17년 6월	17년 7월
증감률	20.8%	24.3%	15.2%

* 2017.04.30 기준 국내 포함 모객 현황

5월 예약률 **20.8%**, **6월** 예약률 **24.3%**, 비수기에도 안정적인 성장성 보임. 일본과 동남아가 중국을 대체하는 2분기의 추세 지속. 유럽을 비롯한 장거리 지역 성장 꾸준한 상황. ASP는 전년대비 높은 성장.

7월 예약률 **15.2%**, 3분기 시작이며 성수기인 7월도 두 자릿수 예약률 기록. 5월 긴 연휴로 영업일수 전년대비 부족하여 예약률이 다소 주춤한 상황. 하지만 현재 예약은 5월 징검다리 연휴가 있음에도 분산되지 않은 안정적 여행 수요로 예약률은 상향될 가능성 높음. 지역별 예약 추세도 2분기와 유사. 특히 일본의 강한 회복세 예상.